

2025년에 구직해본 후기

요즘 채용 시장, 6개월 동안 경험해보았습니다.

김무훈, 2026.01 겨울 백배콘

제 이력 소개

약 3년차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 2학년 마치고, 2020년 구직 시작
 - 게임 전용 오픈소스 P2P 네트워크 R&D 스타트업 인턴
- 2021.08-2024.04 FE 개발
 - 첫 2년 재직 기간 동안 산기요 복무
 - 23.10-24.04, 펜슬컴퍼니 재직
- 2025 FEConf 정식 연사
- 이번 2월 컴퓨터공학 학부 졸업 예정

탈중앙과 온라인 게임이 교차하다

2020년 10월 8일 (· English)

안녕하세요! 지난 2개월 간 플라네타리움의 엔지니어링 인턴으로 일한 김무훈입니다. 저는 [나인 크로니클](#) 출시 직전의 베타 과정을 함께했는데요.

간단히 블록체인과 게임을 결합하며 특이하다고 생각한 기술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탈중앙

온라인 게임은 멀티 플레이와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서버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운영사가 폐업하는 등 여러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온라인 게임을 분업하여 유지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남아있는 한 서비스가 종료될 걱정은 없게 됩니다. 이 개념에 맞는 탈중앙은 전통적인 중앙 서버의 역할을 사용자에게 분담해주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P2P(Peer to peer)나, 분산화 기술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재구성 현상

플라네타리움은 여러 분산화 기술 중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게임 내 재화, 보유한 아이템, 달성한 퀘스트 등의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블록체인에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보관하면 간혹 이 정보가 몇시간 전으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재구성 현상**이라는 걸함인데요.¹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리오그(reorg (reorganization))라 줄여서 부릅니다. 이 글에서도 편의상 리오그라 칭하겠습니다.



블록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체인이라 한다.

리오그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언제나 하나의 체인을 정본으로 지목한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블록은 누구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을 생성하는 여러 노드가² 같은 시점에 블록을 동시에 만든다면 시작은 같은데 끝 부분이 서로 다른 여러 체인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체인을 정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중앙의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P2P 게임 기술 사례 소개, 플라네타리움 엔지니어링 스낵](#)



Mu-Hun

mu-hun

I design interface that everyone understands.

190 followers · 111 foll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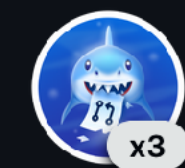
prev. @penxle, @planetarium

iam@muhun.kim

frontend.moe/about

https://hackers.pub/@iamuhun

Achievements



GitHub: @mu-hun


제 이력 소개

약 3년차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FECONF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럼에도 계획해야 하는 웹 접근성

김무훈 | A11YKR 커뮤니티





FECONF

FECONF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웹 접근성, 모든 사람의 콘텐츠 접근을 지향하는 기술

김무훈, A11YKR 커뮤니티
<https://a11ykr.github.io>



발표 슬라이드 QR

강남언니 aws 오늘약집 moyo 요즘IT LottieFiles

2025. 8. 23.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지난 FEConf 2025 에서 웹 접근성에 관해 소개

구인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

내가 직접 가거나 소개 받는다.

1. **지인에게 소개받은 자리**: 대체로 서류 통과-면접 보장
2. **콜드 메일 또는 인재풀 등록**: 자리가 닫혀 있거나 지원 조건이 애매한 경우
4번 중 2번 연락 받아 면접 제안 받음
3. **원티드 등 채용 중계 서비스 스크리닝** → **자사 채용 페이지에 직접 지원**
왜? HR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기 더 용이 & 취업 축하금 두배

4-5년 전 구직에는 지인 소개를 받기 어려웠고, 대체로 **2번 방법으로 합격**

이번 구직에는 1 → 2 → 3 사이클 순서로 **5월 및 9월, 11월**에 구직 활동

이번에 구직 해보니 어떤가요?

이전에 비해 너무나 허들이 높아졌다.

	2020-2021 팬더믹 시기 구직	2025년 "경력" 구직
면접까지 간 비율	3번 넣으면 한번	10번 서류 넣어 한번 단, 사내 추천과 인재풀은 예외
경제 및 급여 보상	기하급수적 상승 UP!	고환율 ₩
요약 = 기회, 운 ✨	$\infty \times 5$ 무한대 행운 버프	$-\infty$ 음의 무한대 버프

못 다룬 회사

NDA 서약 때문에

- 토스 코어
 - Universal Design Team - 접근성 엔지니어
 - 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
- 당근
 - 프론트엔드 코어 팀



토스 코어 (사내 추천)



당근 채용 (사내 추천)

Flex - HR SaSS

Frontend Design System

1. 4학년 1학기, 우선 인재풀 등록
2. 2학기 취업 가능 확인, 재연락
 - 회사 소개, 희망한 직무에 대한 설명
- 1부 코딩 테스트
 - 문제 정의를 넘어, 어떤 태도로 동료와 소통하며 푸는지 주로 평가
 - "논리적 접근과 문제 해결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 1부 통과 후 2부 면접 - "경험과 의사 결정의 맥락을 전달하는 역량이 아쉬웠다."

Re: Talent Relations 연락을 남겼었던 김무훈 예비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훈님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커피챗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있는 포지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원전 궁금하신 사항들을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커피챗 일정 링크](#) 통해 가능하신 일정 선택 부탁드립니다. :)

만약 커피챗 진행 없이, 바로 지원을 희망하실 경우 채용홈페이지 통해 지원 바랍니다.
말씀하신 포지션 2개 모두 중복 지원 가능하며, 각 포지션에 대한 결과를 순차적으로 받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2025년 5월 12일 (월) 오전 8:03, 김무훈 <iam@muhun.kim>님이 작성:

flex 님

아직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라, 우선 Talent Relations 연락을 남겼었던 김무훈 예비 지원자입니다.

얼마 전 졸업 요건 평가를 통해 남은 학점이 5학점 이내로 얼마 남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기 구직으로 취업이 확정된다면, 다음 학기 수업 이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교수진 측에서 받아 채용 과정을 정식으로 거치고 싶어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아래 자리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Product] Frontend Design System
- [Product] Frontend Platform

플 '플렉스 주식회사' 채용 담당자
no-reply@flex.team

받는 사람 무훈 김

6/17/25, 2:23 오후

[플렉스팀] 인터뷰 전형 결과 안내드립니다.

논리적인 접근과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계나 기술 선택의 맥락을 전달하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현재 포지션에서 기대하는 기술적 깊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판단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유의미한 성장을 위해 플렉스팀의 솔직한 인터뷰 피드백을 드리지만, 짧은 시간 동안 김무훈님의 역량과 경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아쉬운 결과를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회사의 상황상 아직 김무훈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Flex - HR SaSS

Frontend Design System

5-6개월 뒤 재지원

1. 2부 실무진 면접 예정으로 안내 받음
2. 실무진과 사전 면담
그간 했던 프로젝트 및 스터디, 컨퍼런스 강연 소개
3. 면접 계획 취소 통보
 - 왜 그랬는지 장문으로 문의
"분명 괄목한 활동으로 잠재성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당장의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기
부족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다."

12월 9일 (화) 오후 4:08

지난 커피챗은 면접을 전제로 진행되었던 만큼, 절차가 중단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실무진과의 대화에서 정규직 전환 인턴십 의향을 문의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직무에서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당장의 기여 측면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정규직 또는 인턴 프로그램 형태로라도 면접 기회를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훈 드림.

12월 9일 (화) 오후 5:18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무훈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최대한 자세히 전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지난 인터뷰 과정을 통해 기대되어 사전에 확인을 위해 커피챗으로 테크 인터뷰 진행 여부를 결정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커피챗 일정 조율시 안내드린바와 같이 그간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변화와 경험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해당 미팅이후 논의를 거쳐 채용프로세스를 안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재학중 캡스톤 프로젝트들을 하시고, FE Conference에서 발표하신 내용은 인상적 이었으며, 성장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무훈님께 기대되었던 역량적 변화와 고민의 깊이 등 앞서 인터뷰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우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짧을 수 있는 기간이었기에 그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이후 진행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만, 5개월간 경험하신 프로젝트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로젝트/과제를 하시면서 겪으셨을 고민과 협업 경험들이 이후 보다 생기신다면, 분명 근시일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자 메시지 · SMS



LINE

Frontend Engineer (Observability Platform)

- 1명 구인, 새 모니터링 플랫폼 담당
- "감사하게도 많은 지원자 분들께서 공고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
- 서류 및 코딩 테스트 이후 화상 면접
 - 복잡한 데이터 역직렬화 구현하기
 - 면접서 무슨 대화 했는지 기억 안남

The image shows a LinkedIn post from user Mu-Hun (MC) dated May 10, 2025. The post is in a 'webdev' group and discusses a job opening for a Frontend Engineer at LINE. It includes a link to the user's portfolio and a link to the job listing on LINE's careers page. Below the post is a screenshot of the job listing for 'Frontend Software Engineer (Observability Platform)' at LINE. The listing includes details about the location (Bundang, Korea), the company (LINE Plus), the role (Engineering, Web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deadline (2025-04-30). A green button labeled 'LINE CAREERS' is visible in the job listing screenshot.

The image shows a text message conversation. The messages are in Korean and discuss the job application process. The messages include: '제목없음 [Web발신] [LINE] 전형 결과 및 코딩 테스트 안내드립니다. 지원 시 기입하신 메일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없음 [Web발신] [LINE] 안녕하세요, LINE 채용담당자입니다. 1차 면접 일정 조율을 위해, 기 안내드렸던 메일을 통해 참석 가능한 일정 선택(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 '제목없음 [Web발신] [LINE] 면접 일정 안내드립니다. 지원 시 기입하신 메일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The messages are dated May 16, 27, and 28, 2025.

서류 및 사전 테스트 통과
→ 면접 진행

저희 회사의 채용공고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지원자 분들께서 공고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 내부

경쟁률 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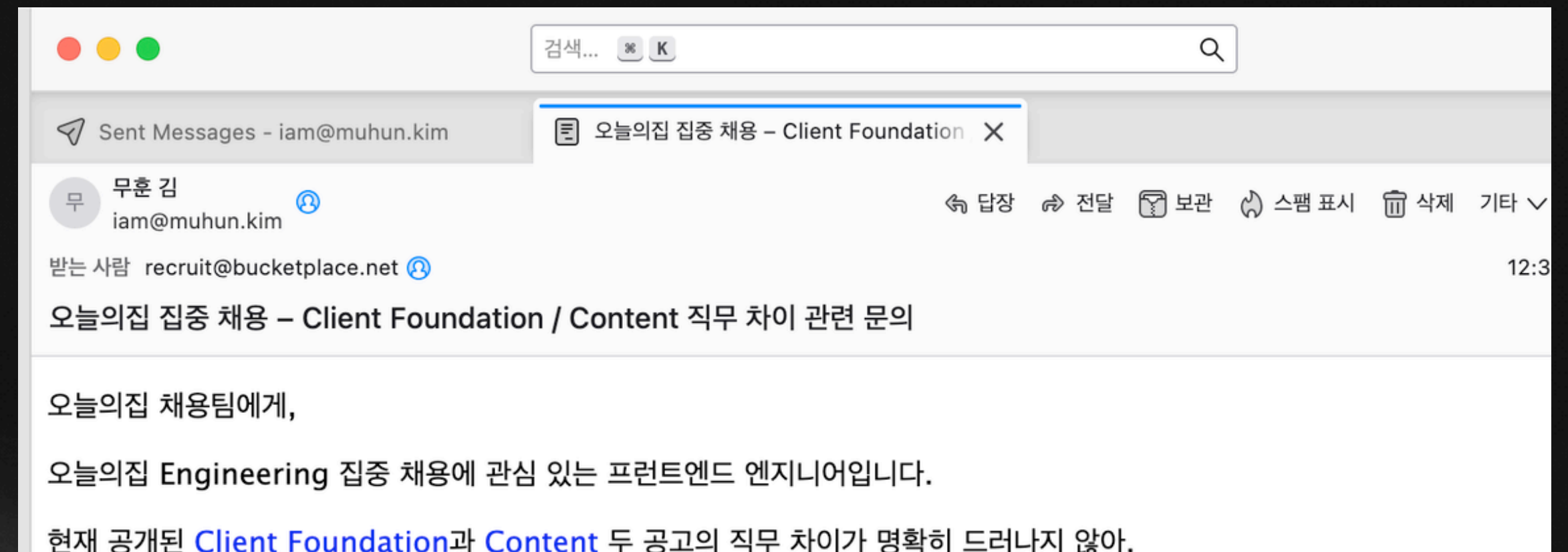
LangDev 를 통해 해당 팀의 BE 엔지니어 분에게 지원 제안 받음

오늘의 집

Client Foundation 지원

1. JD가 잘 정리가 안되어 있어 여러 채널로 문의
2. 사내 추천으로 추천사를 포함하여 서류 지원
3. 서류 지원 3시간만에 탈락 통보

- 서류 검토 전까지는 답장을 받았는데,
- 탈락에 대한 피드백 문의에는 무응답
- 지원자 또한 잠재 고객이라는 점을 염두 해주셨으면 좋겠다.



2025년 9월 12일

in • PM 2:45

@김@무훈님,
연락 감사드립니다.
두 포지션 중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훈 • PM 4:20

보냈던 매일 전문은 위와 같습니다.

무훈 김 iam@muhun.kim

받는 사람 오늘의집

참조 @bucketplace.net

Re: [오늘의집] Frontend Engineer, Client Foundation 서류전형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채용담당자 님께,
안녕하세요. Commerce Foundation 소속 님의 추천으로 이번 채용에 지원한 김무훈입니다.
지원 전에 적합한 포지션을 문의드리며 신중히 준비했으나, 몇 시간만에 서류 불합격 통보를 받아 의아한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번 사유를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다음 기회에는 보다 보완된 모습으로 지원드리고자 참고하고 싶습니다.

김무훈 드림.
9/17/25 2:01 오후에 오늘의집 이(가) 쓴 글:

2025년 9월 16일

김무훈 • AM 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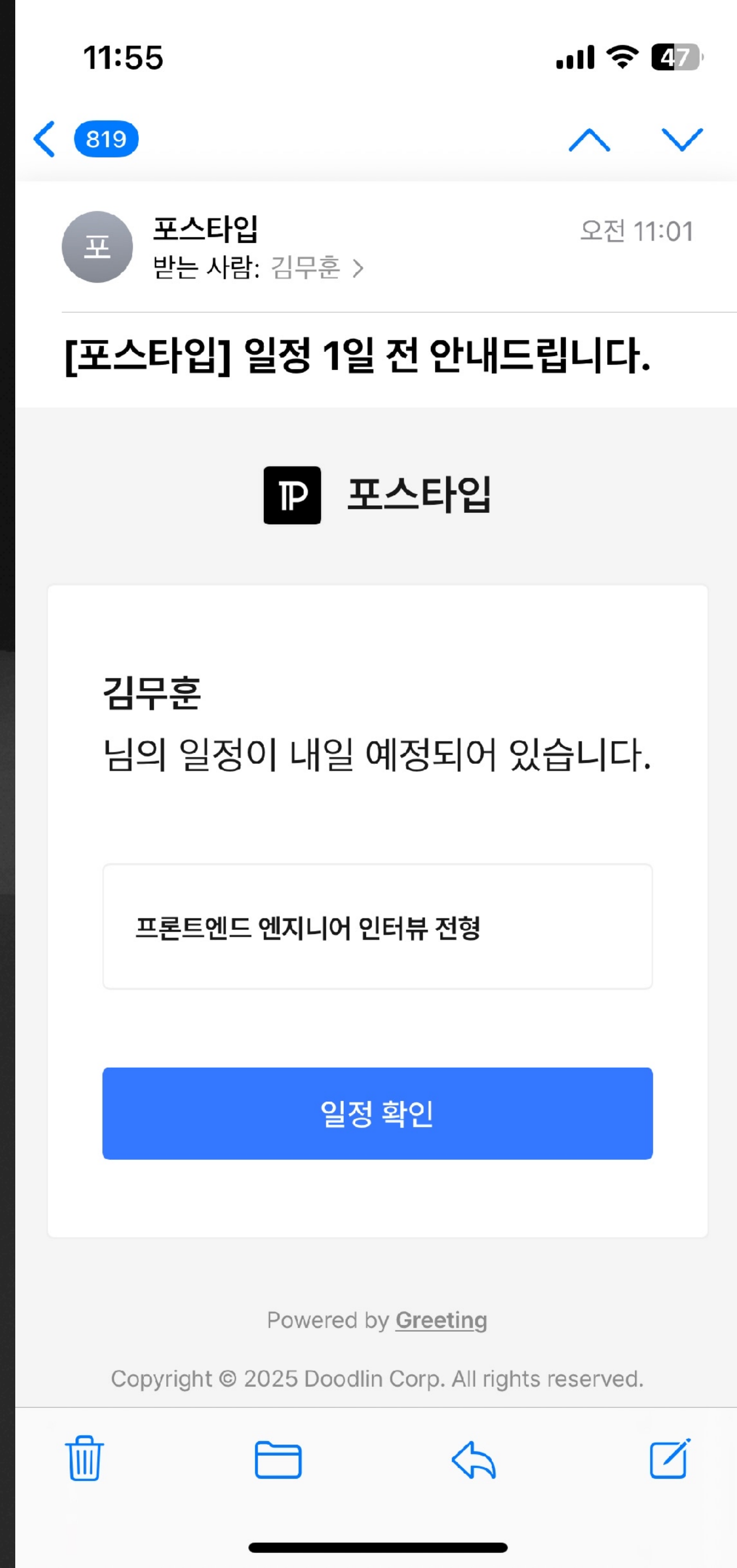
지난 금요일 이후 별다른 단장이 없으시네요 그 사이



포스타입

프런트엔드 엔지니어

- 직전 회사에서 유사 서비스 출시한 경험 보유
- 관련 분야로 창업한 학교 선배님에게 부탁해서 면접 코칭 받음
- **2차 없이 30분 이내 면접으로 당락 결정**
 - 대표 겸 CTO & FE 리드와 대화
 - "서비스 확장으로 FE 1~2명을 모집하고 있다."
 - 이전 직장 환경과 기본적인 질문



중간 정리


더 나은 공고를 찾아보려도 얼마 없다.

- 과거: N명(제한 없는 0명) 채용
- 현재
 - 잠재력보다 당장 투입 가능한 인재 선호
 - 1명 채용하기 또는 유령 채용

면접 경험을 늘릴려면 서류 합격 빈도가 중요
그러나 서류 단계의 허들이 너무나 높아졌다.

따라서 내부 추천 및 인재풀을 통한 면접을 먼저 경험

본래 아껴야 하는 특별 카드를 어찌다 사용한 상황

 **CF-105 ARROW**
@arrow_cf

얼마 전에 들어본 괴담 -

실무 : 이번에 저희 사업 커지는데 사람 더 뽑으면 안 될까요?

인사 : 안돼. 그게 얼마나 더 커질지 어떻게 알아?

실무 : 에이, 그래도 좀 뽑게 해 줘요.

인사 : 그래? 그럼 일단 공고는 올리고 최종 선발은 하지 마. 누가 들어오는지 데이터라도 얻어보자

오후 11:38 · 2025년 10월 30일 · 26.7만 조회수

1 댓글 774 리트윗 1.4천 좋아요 197 북마크

 **Akamig @_Akamig** · 21시간

그치만 이력서 난사를 할 회사가 부족하다

2 댓글 3 리트윗 3 좋아요 304 북마크

 **Akamig @_Akamig** · 21시간

솔직히 "여기서 일하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면서 내 페이를 맞춰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포지션도 내 적성에 맞음" 에 들어가는 회사가 많아야 40-70개 정도인데

이거 다 넣고 나서 한두개 면접보고 떨어지면 이제 할 게 없음

1 댓글 4 리트윗 4 좋아요 144 북마크

 **Akamig @_Akamig** · 20시간

이제 그러면 회사 납득 / 페이 / 포지션 적성 을 한두개씩 타협해가면서 하나씩 줄여나가는 말이 나올텐데 이미 처음부터 타협해서 줄임 - 내가 한 말이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서"가 아니라 납득이 된다고 한것에 유의

1 댓글 2 리트윗 2 좋아요 124 북마크

 **Mu-Hun**
@iamuhun

구인 입장에는 경력을 선호하나, 산기요와 초기 창업 팀을 거친 제 입장에는 경력을 채용하면서 이전 환경보다 나은 곳을 만족하는 조직을 정말 찾기 어렵네요. 🙄

오후 12:22 · 2026년 1월 17일 · 35 조회수

AI로 FE 과제 낸 회사 (과제 공개됨)

아직 실험적인 AI로 역량을 가늠 하는게 의미 있나?

[미션드라이브]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공고 | 윈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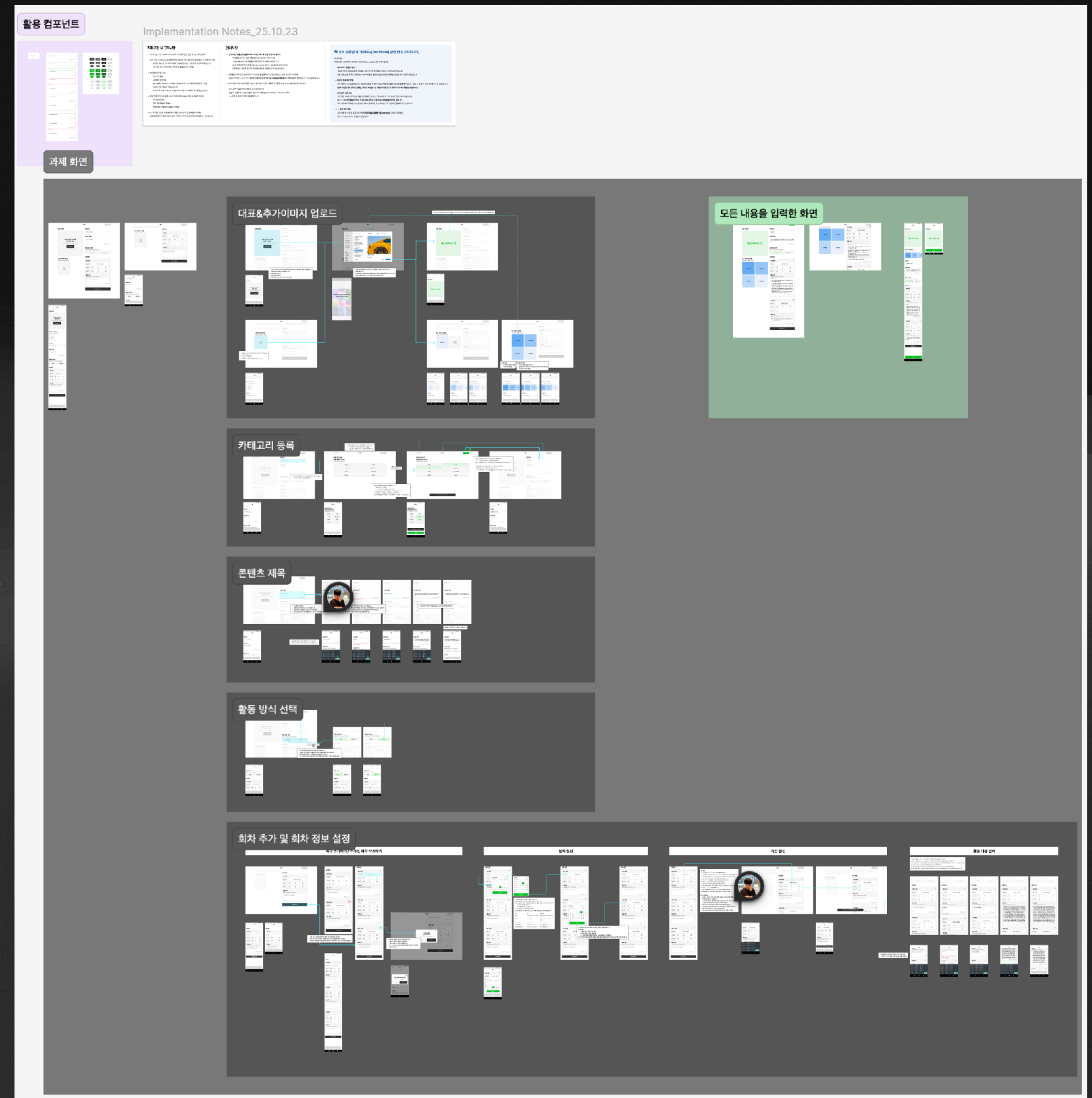
1. "복합적인 UI 개발을 프레임워크 없이 만드시오."

- bottom-up utilization PoC: [zag-vanilla-js](#)
- AI 명시적으로 사용 허가

2. 또 다른 과제 - 서버사이드 템플릿 리팩터링하기

- Flask + Jinja 레거시 코드를 걷어내는 과제
- 사람과 AI 둘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주석 문단

배려가 느껴지지 않아 중단하겠다고 메일 보냄.



"Figma 개발자 플랜 직접 결제해서 전체 목업 참조하세요"
→ 예? 과제 전용 계정을 제공해주시는게 아니고요?

미션드리본 - F

아직 실험적인 시로 역량

2025. 10. 27. 오후 8:48

오잉 과제가 공개예요?



Mu-Hun 2025. 10. 27. 오후 8:48

네

```
import { getCommunityActivitiesQPoint } from '/static/js/page/community/point/update-point-for-community.js'

function updateCommunityActivityCounts(data) {
  // 최초 글 작성
  const firstPostDiv = document.getElementById('FirstPostCount')
  if (data.firstPost && data.firstPost.currentRegistered > 0) {
    firstPostDiv.innerHTML = `<span style="color: var(--system-black); font-weight: 700">${data.firstPost.currentRegistered} 회 /&nbsp;</span> ${data.firstPost.totalAvailable} 회`
  } else {
    firstPostDiv.innerHTML = `0<div>&nbsp;</div>`
  }

  // 글 작성
  const postDiv = document.getElementById('PostCount')
  if (data.post && data.post.currentRegistered > 0) {
    postDiv.innerHTML = `<span style="color: var(--system-black); font-weight: 700">${data.post.currentRegistered} 회 /&nbsp;</span> ${data.post.totalAvailable} 회`
  } else {
    postDiv.innerHTML = `0<div>&nbsp;</div>`
  }
}

getCommunityActivitiesQPoint().then((data) => {
  updateCommunityActivityCounts(data)
})
```

웹 컴포넌트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코드를 봐야 하는 건가 (수정됨)



저기 주어진 레거시 코드를 짚욱 둘러보았을 때... BE 중심의 트러픽터에 맞춰진 개발 환경인가 궁금해졌어요.



2025. 10. 27. 오후 8:54

getElementByld와 innerHTML을 얼마나 잘쓰는지를 본다니

뭘시킬라구

2025. 10. 27. 오후 8:56

오우 여기가 xss 맞집인가

멀쩡한 웹 컴포넌트 표준을 놔두고 대체? / 지인: 오우 여기가 XSS 맞집인가
/app/templates/event/attendance_check.html#L1264-L1303

전공 관련 질문

다른 회사에서 받은 질문

스프레드시트 뷰어 및 매크로 행 편집하기

1. 정말 많은 열을 가진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뷰어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를 어떻게 색인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2. $x ? y = z$ 형식의 수식을 갖는 매크로 열이 있고, 다음 행의 셀이 이전 행의 셀에 계산이 종속됩니다.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나요?

RDB의 시간복잡도

- 프라이머리 키로 특정 레코드를 찾는데 걸리는 최악의 시간복잡도, 최적의 시간복잡도
 - 프라이머리 키는 UID이니 최적의 경우 바로 찾고, 최악의 경우 레코드 갯수만큼 걸린다.
- B+ 트리를 사용해 $\log(n)$ 으로 색인이 된다는 걸 면접 끝나고 서야 암

